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김 용 택

식량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내생산의 확대,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입, 비축관리제도의 운영,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다.

1. 서론

2007년 후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곡물가로 말미암아 전세계는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 급등하는 국내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일부 식량수출국들은 식량수출을 제한시켰고 그 결과 국제곡물가가 더욱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런 악순환이 초래되자 식량수입국들은 식량안보를 더욱 우려하게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팽배해졌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식량수입국으로 국제 곡물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쌀 공급기반은 안정적이지만 밀, 옥수수, 콩 등 다른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취약하다. 국제곡물가가 급등하고 불안정이 심화되면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식품산업과 축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량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내생산의 확대,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입, 비축관리제도의 운영,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생산 확대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국제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는 국제곡물시장으로부터 수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상시 수입물량확보의 대안은 비축관리제도나 해외농업개발 등이 될 수 있다.

* 본 내용은 해외농업개발 관련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yongkim@krei.re.kr, 02-3299-4233)

그러나 해외농업개발 시행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과거 해외농업개발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불확실성과 위험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해외농업개발은 권장할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굳이 해외농업개발을 해야 한다면 민간 기업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진출하고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외교, 정보수집과 배분, 관련기술 제공,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같은 분야에 정부 지원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의 주체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과거 일본은 해외농업개발을 어떻게 전개하였고 현재 어떤 입장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대체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대외원조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JICA, JBIC 등)이나 관련 협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사·연구사업,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대규모 곡물생산과 국제곡물유통은 종합상사, 사료곡물의 확보는 젠노(zenno, 全農,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종합상사, 정부(농림수산성)는 관련 정책 입안, 관련법과 제도의 제정 및 정비, 조사·연구 시행하고, 국제원조를 담당하는 JICA는 조사사업,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원조자금의 활용)을 담당하며,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는 JBIC는 조사사업과 관련자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일본 전체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일본 민간기업과 농업협동조합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곡물 확보에는 대기업 종합상사들과 젠노와 같이 규모화되고 정보력과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농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만 하는 가공농산물 등을 일본기업이 해외에 나가 계약생산 등을 통하여 생산물량을 확보한 후 이를 일본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셋째는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 원조형태로 개도국 농업을 지원하는 것의 일환으로 개도국 농업을 개발해 주고 이 대가로 일본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해외 농업 이민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부터 국제곡물의 안정적 확보에 국가적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이들 3가지 해외농업개발방식들이 현재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이 원고에서는 일본의 세 가지 해외농업개발방식들을 각각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과 한국 해외농업개발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대체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대외원조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나 관련 협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사연구사업,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2. 일본의 곡물약보 변천

일본이 가공용 곡물이나 사료용 곡물의 해외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변천과

정은 다음과 같다.

1963년에 일본 축산은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과 선박운임 상승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관련기업들은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1960~70년대에는 종합상사가 주축이 되어 해외의 사료 자원을 개발투자하였다. 이미 1960년대 중반에 C&F구매 일변에서 FOB구매를 병행하는 등 원료구매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주요 항만에 전용부두와 사일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주로 일본종합상사의 주도로 상대국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료곡물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였지만 생산성 및 수익성의 저하로 대부분이 실패하였다. 이 당시 사료곡물 확보를 위하여 일본 기업이 해외농장개발에 투자한 대표적 사례를 들어 보면, 1968년에 종합상사 미츠이가 인도네시아 농장을 개척하여 옥수수 및 수수를 생산하였고, 1971년에는 이토츄, 1973년에는 미즈비시가 동일한 지역에 농장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수미토미 상사가 호주에 농장을 설립 운영하고 유니온 트레이드가 태국에 옥수수 농장을 시작하였으며, 1978년에는 일본정부가 브라질에 CAP 농장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미츠이가 호주 오드리버 지역에 수수 및 목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해외식량기지건설이 많은 실패를 겪게 되자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유통시설에 대하여 적극 투자하고 유통물량확보에 중점을 두는 수확 후(Post Harvest) 전략을 채택하였다.

한편,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 종합상사들은 장기공급계약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태국과 연간 80~90만 톤의 옥수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73년에는 미국과 “안배, 버즈 신사협정”을 통해 소맥 3백 톤, 사료곡물 8백만 톤, 콩 3백만 톤을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오스트리아, 캐나다로부터 소맥을 각각 140만 톤과 1백만 톤 장기 계약하였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에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이 없었으며, 이후 일본의 사료곡물은 소위 “Post Harvest” 전략으로 확보하였다.

“Post Harvest”(해외 유통시설 투자) 전략은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저장시설 등에 투자하여 유통구조를 지배하는 전략이다. 1966년에 일본 농협조합은 미국내 중서부 옥수수 주산지에 7개 수출기구(FEM, Farmer Export Co)를 설치하였다. 1968년 FEM은 뉴올리언즈 상류에 128천톤 규모의 사일로 시설에 투자하였고, 1978년에는 미츠이 물산이 미국 미시시피 하구에 진출하여 도산한 곡물 메이저 Cook Industry를 인수하였다. 1979년에는 젠노가 뉴올리언즈 상류에 사일로 104천 톤 시설을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젠노의 경우 사일로 시설을 기반으로 미국 중서부의 단협이나 지역연합회로부터 직접 옥수수를 매입하였다. 1988년에는 젠노와 종합상사가 공동투자하여 CGB(Consolidate Grain & Barge)를 인수하였다. 1980년

1960~80년대 중반까지 일본 종합상사들은 장기공급계약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1980년 중반 이후에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이 없었으며, 일본의 사료곡물은 “Post Harvest” 전략으로 확보하였다.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종합상사(주로 미츠비시, 미즈이)는 미국 내 곡물 저장시설(지방대도시 집산시장의 터미널 엘리베이터,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노이 등 강변 엘리베이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였다.

일본의 사료곡물은 젠노가 30%를 종합상사가 70%를 수입한다. 젠노 및 미츠비시는 미국 현지 자회사를 통해 구입(전량 혹은 일부)하며, 이외의 종합상사는 카길 등 곡물메이저를 통하여 구입한다. 사료제조업체의 경우 젠노 및 종합상사로부터 구매하고 곡물메이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젠노의 원료확보시스템은 현지투자 자회사인 CGB와 ZGC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CGB는 현지에서 생산자로부터 현물구매하고, ZGC는 CGB로부터 구매하며, 젠노는 ZGC로부터 원료를 구매한다. CGB는 현지에서의 집하·운송을 담당하고 29개 강변 엘리베이터를 운영한다. ZGC는 뉴올리언즈항에 수송·보관·수출기능의 수출용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ZGC 및 젠노의 원료확보 방법으로 ZGC는 CGB로부터 베이스 방식¹⁾으로 구매하고 전농 역시 약 90% 이상을 ZGC로부터 입찰방식을 통한 베이스 거래로 구매한다.

한편, 종합상사의 원료확보 시스템은 종합상사 중 미츠비시는 곡물 메이저로부터의 구매와 직접구매를 병행하고 있다. 직접구매는 2개의 자회사를 통해 대부분 베이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연간 수입량은 400만 톤(일본 300만 톤, 해외 100만 톤 정도 공급)이다.

기타 종합상사들은 미국 내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메이저로부터 FOB로 곡물을 확보한다. 대부분 입찰방식(일부 상사계열 사료공장의 경우 직공급)으로 일본 내 상사계열과 일반사료공장에 공급한다. 이토추 상사의 경우 젠노와 함께 CGB 지분을 공유하고 산지에서의 집하 및 판매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종합상사는 일본 내 사료제조업체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젠노와 종합상사 계열 사료공장 6곳의 시장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료공장으로는 마루베니(丸紅사료), 미즈이(일본배합사료), 미츠비시(일본농산공업), 이토추(아미소사료, 河田사료), 니쇼이와이(닛뿐사료), 수미또모(月清사료, 清水産사료) 등이 있다.

3. 곡물 확보에서 종합상사의 역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즈이 물산이나 미츠비시 상사 등과 같은 종합 상사는 가공용이나 사료용 곡물 확보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미즈이 물산(三井物産)은 식량소매본부(retail)¹⁾의 곡물유지부와 사료축산부 등에서 대두, 밀, 옥수수 등의 곡물을 취급하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식량자원확보, 원재

1) 미즈이 물산 홈페이지 <http://www.mitsui.co.jp/>

일본의 사료곡물은 젠노가 30%를 종합상사가 70%를 수입한다. 젠노 및 미츠비시는 미국 현지 자회사를 통해 구입(전량 혹은 일부)하며, 이외의 종합상사는 카길 등 곡물메이저를 통하여 구입한다.

미즈이 물산이나 미츠비시 상사 등과 같은 종합 상사는 가공용이나 사료용 곡물 확보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료수입, 해외시장 판매 등이다. 미즈이 물산은 M&A로 해외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1996년 Wilsey(주식 보유율: 미즈이 물산 70%, 미국 미즈이물산 20%)는 미국 최대의 농협과 50%씩 출자해서 Ventura Foods(미국 최대규모의 가공유지 식품제조업체)를 설립하였다. 미즈비시 상사의 생활산업그룹 농수산본부²⁾에서는 원료 생산·수확 현장에서 수송·가공, 제품 유통·소매까지를 일괄 관리하는 Value Chain Management(VCM)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 거점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집하하고, 집하 농산물을 원료가공업체에 공급하고 그 제품인 밀가루, 설탕, 전분, 식용유, 사료 등을 식품가공업체 등 수요자에 판매한다.

일본 미즈이 물산은 세계적인 곡물수요 증가와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일본식량의 안정 공급과 식량사업 확대 목적으로 브라질에 현지농업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그리콜라 신구에 약 70억엔을 투자하고 지분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매출액으로 1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3개 농장의 면적은 각각 9,864ha(Xingu 농장, 대두, 옥수수 재배), 80,898ha(Tabuleiro 농장, 대두, 면화, 옥수수, 콩류 재배), 9,969ha(Demeter/Bocaina 농장, 대두, 면화, 옥수수, 콩류 재배)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대두 연 생산량은 일본의 연간 소비량의 약 3%에 해당되는 11만 톤 정도이며 이렇게 생산된 대두는 일본 이외에도 중국과 유럽에 수출된다(일본경제신문, 2007년 11월 13일). 현재 생산된 농작물은 식용으로 수출하지만 미래에는 사탕수수를 사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미즈이 물산의 물류 노하우를 살려 수송경로를 강화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PMG, CHS와 공동으로 곡물 수출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원 출자를 계기로 생산에서 집하 및 수출까지 일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미즈이 물산의 향후 식량자원 투자계획³⁾은 2008년도 제3분기에 브라질 종합농업 콤플렉스 안건(MULTIGRAIN(대두, 밀, 옥수수))에 대한 식량자원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중국 등 신흥 경제국의 수요 증가나 바이오연료용 수요 급증 등으로 곡물의 안정 공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종합상사가 직접 농장경영에 진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종합상사의 농장경영 진출 사례

최근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수요 증가나 바이오연료용 수요 급증 등으로 곡물의 안정 공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종합상사가 직접 농장경영에 진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캔자스에 본사를 둔 곡물집하판매회사 AGREX INC.(취급 품목: 옥수수, 밀, 마이로, 대두, 대두박 등), 미국 서해안에서 정제·가공유지사업을 추진하고 옥수수 식용유, 팜 식용유, 야자 식용유를 원료로 한 가공유지제품도 취급하며 미국에서 업무용·가정용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는 California Oils Corporation (퀸즈랜드주 브리즈벤에 본사를 둔 호주의 곡물집하판매회사), 대맥, 소맥, 유채, 마이로 등의 곡물, 유량종자 및 쇠고기를 수출하고 호주에서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Riverina(Australia) Pty. Ltd. 등과 같은 회사를 들 수 있다.

2) 미즈비시 상사 홈페이지 <http://www.mitsubishicorp.com/jp/index.html>

3) 자료: 미즈이 물산주식회사 식량·리테일본부 사업설명회 2008.02.29

이들 일본 종합상사들의 곡물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옥수수의 경우 산지에서 곡물회사가 주체가 되어 물량을 확보하고 이 단계에서 Non-GMO를 분별하고 관리한다. 산지에서는 CHS, LDC 등 유력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선적하여 수입할 때는 배 회사의 Bulk선이나 자사용 배를 이용하고 저비용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모경제로 운영한다. 수입한 원료는 사료업체나 전분당업체에 판매하며 사일로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 유통과정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주체가 축산물 생산가공업자나 식육도매업자가 되며 지속적으로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일본 종합상사들의 곡물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옥수수의 경우 산지에서 곡물회사가 주체가 되어 물량을 확보하고 이 단계에서 Non-GMO를 분별하고 관리한다.

표 1 일본 종합상사의 옥수수 유통 현황(예시)

유통단계	산지	선적, 수입	원료판매	제품판매, 중간유통
작업	곡물회사 구입 Non-GMO 분별관리	Bulk선 자사용 배	사일로회사 출자	제조업의 사업 경영
주체	곡물회사	배 회사 사일로	사료업체, 당화전분업체	축산물생산가공업자 , 식육 도매
전략	CHS, LDC 등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	규모경제로 저비용 운영	사일로 전략에 의한 안정 판매 처 확보	수요자 요구파악

표 2 일본 종합상사의 밀, 대두 유통 현황

유통단계	산지	선적, 수입	원료판매	제품판매, 중간유통
사업 내용	곡물회사에서 구입 곡물회사에 출자 Non-GMO 분별관리	United Harvest 보유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효율 운영	입찰에 의한 정부 매도 식품·제유업체에 안정공급	제품의 국내 비즈니스
주체	곡물회사	Country/수출 Elevator	정부, 제조업체	
전략	Viterra, LDC, CHS, ABB 등 유력기업과 파트너십, CHS과의 공동 출자회사 UH 활용	규모경제로 저비용으로 운영	고부가가치상품, 안정공급으로 판매처 확보	생산지에서의 원료 조달력과 소비유통 지원 기능 발휘로 식품업체와의 관계 강화

자료: 미츠이물산주식회사 식량리테일본부 사업설명회 2008.2.29

4. 해외농업개발수입

일본 식품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해외직접투자를 늘이고 해외에서 생산된 가공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은 급격한 엔고⁴⁾와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배경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4) 미국달러에 비해 엔의 가치가 높아짐.

1990년대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수입이 다시 감소하였고, 1993년부터는 다시 엔고로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최대 시장이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남태평양(호주)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 1993년에는 해외직접투자에서 남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9.7%나 되었다. 이처럼 일본이 남태평양에 대한 진출한 이유는 풍부한 농산물 및 수산물 등 식량자원을 일본으로 수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남태평양에 대한 진출은 쇠고기 수입자유화 전후에 급증하였고 일본 식품산업의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시장이었다.

당시 아시아에 대한 진출이 증가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엔고때문이다. 아시아 진출국 중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이외에 면화, 작유작물(기름을 짜는 작물), 쌀, 보리 등에 대해서도 국가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식품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일본으로 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국 현지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즉석라면, 조미료, 유지, 음료 제조기업 등은 중국 현지판매를 위하여 진출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일본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목적은 주로 현지시장에서의 판매 혹은 일본에서의 수입이며 제3국에 대한 수출은 예외적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시장에 진출한 목적은 현지시장에서의 판매이다. 미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소득수준도 매우 높으며 새로운 식품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기업이 많다. 라면이나 간장과 같은 식품은 현지 일본교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양의 수출이 있었고 경쟁할 기업이 거의 없었다.

태국에서 냉동닭고기, 쌀과자, 흑설탕, 전분, 생간 절인 것, 죽순 통조림, 양곤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냉동 새우, 신선·냉동 오징어 등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태국경제발전으로 인한 임금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태국에서의 장점이었던 저비용생산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중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녹차, 민물장어 조제품, 냉동채소(꽃콩, 완두콩류 등), 건조채소(표고버섯, 양파, 죽순 등), 채소 통조림(아스파라가스 등), 토마토 조제품, 곤약, 냉동닭고기, 볶은 낙화생, 복숭아 통조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에 언급하는 2가지 사례들은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수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중국에서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가공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는 요시노 식품유한공사이다. 요시노 식품은 일본의 치요다 물산이 중국 칭다오에 투자한 식품가공회사이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외식산업 기업들이며 아직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시장에서의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야채, 육류, 생선 통조림, 냉동식품류 등이며 매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

일본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목적은 주로 현지시장에서의 판매 혹은 일본에서의 수입이며 제3국에 대한 수출은 예외적이다.

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로 절단한 야채를 포장하여 일본 외식산업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파를 가공·수출하고 있지만 향후 당근, 감자 등으로 취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시노 식품이 중국에 진출한 이유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발적 잔류 농약 검사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중국에서 가공한 파가 일본 국내산보다 안전성이 높은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셋째, 청다오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채소 신선도를 유지하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넷째, 일본내 채소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시노 식품이 중국 진출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은 첫째, 채소 조달을 계약재배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생문제로 인하여 조달선이 제한되는 것이었다. 둘째, 계약재배의 경우, 계약을 위반하는 농가들이 발생하였다. 셋째, 일본 농민단체들이 반발하였다. 넷째, 중국산 농산물의 잔류 농약문제로 중국농산물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평가가 낮아진 것이다. 이런 문제 하에서 요시노 식품이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책으로 첫째, 재배 및 농약관리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 일본기업을 활용하여 이들이 재배농가를 철저히 지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둘째, 중국 농산물 품질규격기준의 엄격화를 유도하며 셋째, 유기농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일본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외식업체에도 가공채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이토추 유한공사이다. 이토추 유한공사는 냉동채소와 육류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산동성에만 10개의 중국 식품가공회사에 출자하였다. 중국에 투자하는 방식은 중국내 가공회사에 출자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즉, 계약한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에 진출한 도매상, 슈퍼, 외식업체 등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중국 계약생산농가들에 대하여 생산 지도를 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특히 주요 종묘회사들이 개량품종을 중국에 공급함으로써 품질개선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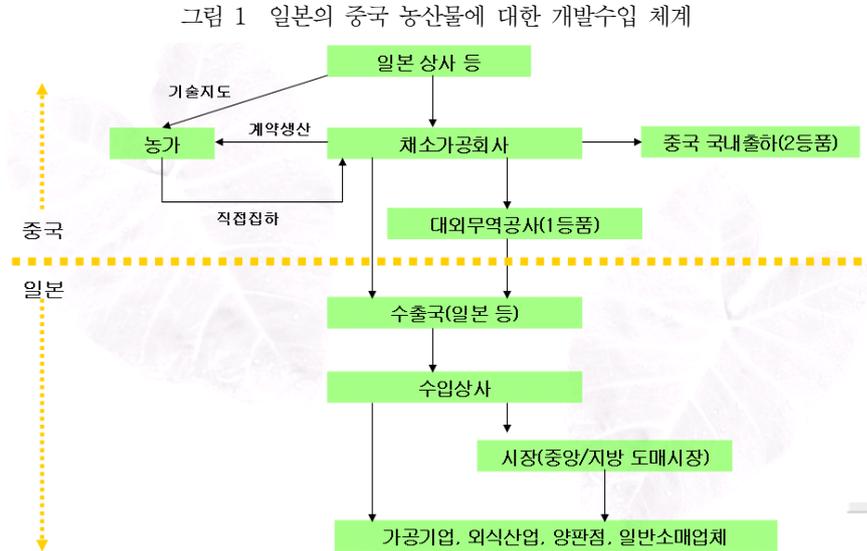
일본 식품기업들은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일본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입 급증으로 일본내 생산이 감소한 경우는 우영이나 버섯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산 수입증가는 미국 수입이 중국 수입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 일본의 기술력이 많이 보급되면서 중국 농가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일본 농업협력은 민간기업 수준에서의 농업협력체제이며, 중국정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약 등 식품안전대책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일본 농민단체의 경우,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중국산 수입물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공격은 없는 편이다. 농민이 저항

일본 식품기업들은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일본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 농민단체는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수입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는 편이다.

중국과 일본 농업 협력은 민간기업 수준에서의 농업협력체제이며, 중국 정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약 등 식품안전 대책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는 방식은 데모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이며 이미지 비난·간접조사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2가지 사례에서 살펴본듯이 일본의 중국 농산물개발수입 체계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료: 김완배,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투자방안 연구, 2006. 3.

5. 일본 정부의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업개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JICA(일본 국제협력단)를 통하여 브라질 세라도 지역의 농업을 개발한 사례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정부가 JICA(일본 국제협력단)를 통하여 브라질 세라도 지역의 농업을 개발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외농업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추진 배경

일본이 세라도 농업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은 당시 일본정부와 브라질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1973년 미국에 의한 대두금수조치를 당한 뒤 일본 내에서는 식량안보 논의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브라질 정부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미국이 1973년에 일본 대두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에서는 식량안보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식량자원외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 식량안보를 위하여 논의된 방안은 식량수입국 다각화, 농업개발수입, 식량공급기지 건설 등이었다.

브라질은 1960년 국가통합과 내륙 개발을 목적으로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이전 하면서 1975년 당시 갈제이 대통령은 “세라도 거점 개발계획(POLOCENTRO)”을 발표하고 세라도 지대의 인프라정비와 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하였다. 세라도는 예부터 건조지대 식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업상 가치가 없는 “불모지대”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1959년 상파울루대학의 식물학자 페리는 세라도의 낮은 농업생산성의 원인이 강우부족 때문이 아니라 토양의 화학적 요인 때문인 것을 규명하였다.

이처럼 일본과 브라질 양국의 이해가 합의됨에 따라 대두 공급기지로 세라도 지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일본과 브라질 간에 “세라도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라도 전체 면적은 일본면적의 5.5배나 되는 2억 400만ha이었으며, 개발가능 면적은 1억 2,700만ha이었다. 현재의 농용지 면적은 4,700만ha이며 앞으로도 농업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8,000만ha나 된다. 이런 세라도가 현재 브라질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곡물 전체의 25%, 대두 50%, 소 사육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목적

일본의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은 ①브라질 국내의 지역개발(regional interest), ②세계에 대한 식량공급 증대(global interest), ③일본의 식량안전보장(national interest)이었다.

사업 개요

일본의 세라도 농업 개발사업의 목적은 ①브라질 국내의 지역개발, ②세계에 대한 식량공급 증대, ③일본의 식량 안전보장이었다.

그림 2 사업 단계별 주요 사항

<p>Prodecer I 초기 프로젝트 (1979~1983)</p>	<p>· Minas Gerais 주의 3개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이유: 시장접근성 유리, 우수한 기반시설, 만족스러운 기술적 지원, 농촌지도 사업 기관 - 5,000ha, 5,000만 USD, 92가구(이주가구임) - 방법: 농가이주식, 농기업진출식
<p>Prodecer II 초기 프로젝트 II (1985~1990) 확장 프로젝트 (1985~1993)</p>	<p>· 기후가 다른 2개의 지역(Mato Grosso 주, Bahia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기후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목표 - 65,000ha, 옥수수/ 콩 등의 다년생 작물, 옥수수 포함 - 1억 USD, 165가구
<p>Prodecer III 초기 프로젝트 III (1995~2001)</p>	<p>· 기후가 다른 2개의 지역(Mato Grosso 주, Bahia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농촌 경영기술의 통합, 관계기술 도입, 연중 일조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는 기후에서 새로운 작물 도입 - 80,000ha, 137.9백만 USD, 81가구

세라도 사업을 하자는 공동 논의가 시작된 후 전체 계획에 대한 기초연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사업들에 대한 계약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집행기구를 설립한 후에 각종 프로젝트를 계약하고 차관 계약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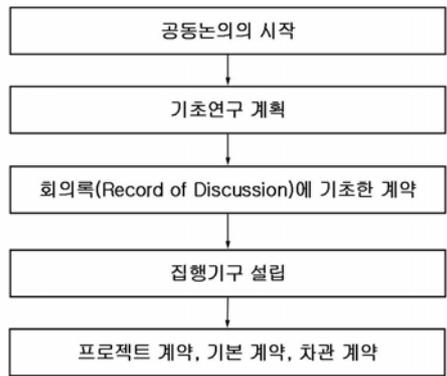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의 명칭은 프로디젤사업이었으며 사업이 이루어진 총 기간은 1979년부터 2001년 3월까지 22년간이었다. 사업대상면적은 34만 5천ha이었으며 대상지역에 717호 농가가 입식되었다. 지원방식은 일본 측과 브라질측이 사업비용의 90%를 브라질의 금융대행기관을 통하여 입식농가에게 설비자금과 영농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서의 실시 주체는 국제협력사업단(JICA)과 해외경제협력기금(현 국제협력은행)이었으며, JICA는 전문가를 장기간 파견하여 관련 기술을 지원하였다. <그림 2>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세라도 개발사업의 주요 사항을 보여준다. 1단계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4년간 Minas Gerais 주 3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시장접근성, 기반시설, 기술지원에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5,000ha가 1단계의 개발목표였다.

2단계에서는 개발대상면적이 65,000ha였으며, 기후가 다른 2개 지역인 Mato Grosso주와 Bahia주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기후가 다른 2개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콩, 다년생작물,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1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165가구가 입식되었다. 2단계를 더욱 확장하는 추가 2단계에서는 개발대상면적이 140,000ha에 입식농가는 380명, 총 투자액은 2억 75백 만 불이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와 같은 지역이었으며, 농촌경영기술을 통합하고 관개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8만 ha을 개발하고 137.9백만 불이 투자되고 81가구가 입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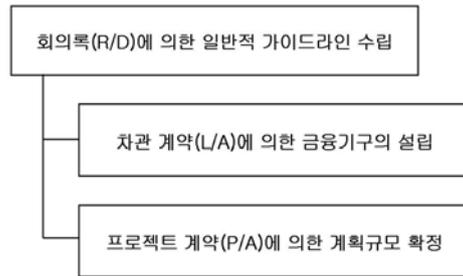
사업진행절차

그림 3 세라도 사업의 시행 단계



세라도 농업개발의 사업진행절차는 <그림 3>와 같다. 세라도 사업을 하지는 공동 논의가 시작된 후 전체 계획에 대한 기초연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사업들에 대한 계약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집행기구를 설립한 후에 각종 프로젝트를 계약하고 차관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림 4 사업합의서와 사업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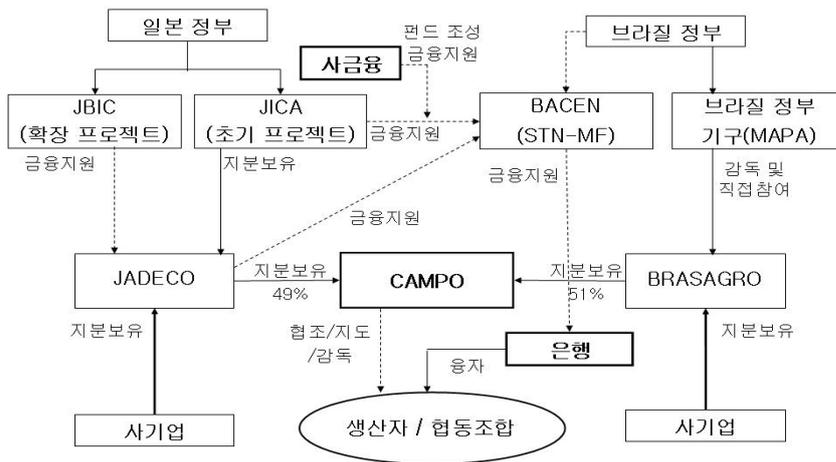


사업 내용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은 ①기술협력과 ②자금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기술협력은 1977년에 CPAC를 협력 상대기관으로 시작되었고 3기의 협력기간을 걸쳐 1999년에 종료되었다. 이 기간동안에 CPAC의 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생산력 향상기술과 지속적 농업기술을 확립해 나갔다. 자금협력은 1979년에 제1기 “일본·브라질 농업개발협력사업”부터 시작되었다.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은 ①기술협력과 ②자금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5 일본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



일본-브라질 합자회사인 CAMPO는 세라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측에서는 JADECO가 49%의 지분을, 브라질 정부 측에서는 BRASAGRO가 51%의 지분을 갖는 합자회사 CAMPO를 설립하였다. CAMPO는 향후 브라질 세라도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합자회사인 CAMPO는 세라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업시행과 용자계획을 작성하고 연간 과정동안의 성과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사업구역 설정하고, 생산자 및 협동조합을 선정하며,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농촌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자금관리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며 시험지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세한 역할은 <표 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아울러 세라도 농업개발에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의 역할은 <표 4>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표 3 CAMPO의 기능과 역할

1. 목적	Cerrado 지역에서 농업생산활동의 지원, 증진, 시행
2. 주요 활동	
1) 과정 연구, 계획, 조정	- 사업 시행과 용자 계획 작성, 연간 과정 성과 통합 - 참여 협동조합과의 계약, 기술적 계약(은행과의 진행 원칙, 사업이 시행되는 주정부와의 협조 계약), 기타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2) 사업구역 정의	- Procecer I에서 CAMPO는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함. - Procecer II, III에서 CAMPO는 선정된 지역을 연구
3) 사업 참여자의 선정(생산자, 협동조합)	- 기수립된 기준에 따른 협동조합 선정 - 협동조합에서 선정된 생산자들의 최종 선정 - 사업 실행의 시점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이미 상주하는 농민과 농업전문 학자들에 대해서는 CAMPO에서 직접 선정
4) 계획의 수립과 실행	- 토지의 측정, 경계구분, 계획수립과 각 사업에서 간접시설의 계획 작성(Master Plan)
5) 농촌 관리 계획의 작성(개별 기술사업), 기술지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농촌관리 기술과 각 매뉴얼 작성을 통합하여 농촌 관리 계획을 작성 - CAMPO는 처음 4~5년 동안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그 후 기술지원은 협동조합에서 수행함. - 첫 번째 기간(phase)에 이러한 초기 업무는 EMATER-MG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행됨.
6) 자금 대출에 관한 조언 관리	- 앞서 언급한 사업 기획에 따라 생산자들에게 용자금 대출에 대한 조언과 지도 및 감독 실시
7) 시험지역 관리	- 생산자들의 요구와 가능성에 따라 그들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써 시험생산과 종자의 분배를 위한 설치와 관리의 지원
3. 관리 구조	
1) 고용자수 (2001. 3)	- 총: 161명 - 헤드쿼터: 38, 생명공학 부문: 76(Paracatu 46, Cruz das Almas 30), Coromandel 농장: 7, 분석 연구: 10, 지역 요원: 30
2) 수익원	- Procecer 관리 수수료: 용자 차감 잔여액의 1% - 사업 기획 수수료: 은행에서 생산자들에게 용자한 금액의 2% - 생산자들에 대한 기술지원 수수료: 용자 차감 잔여액의 2%
3) 관리 조건	- CAMPO의 수익은 앞서 언급된 몇 가지 수수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기타 언급된 부서활동에서도 일부 발생함. - Procecer가 완료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에 의한 CAMPO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CAMPO의 기능과 역할 조정에 대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임.

표 4 협동조합의 역할과 주요 활동

역할	활동
1. 협동조합의 선정	- 농업부에서 선정한 협동조합에 대하여 경영 기반, 기술적 가능성, 곡물 생산 경험, 금융 조건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재선정
2. 협동조합의 역할 1) 생산자 선정	- 협동조합과 CAMPO가 생산자들을 최종 선정함.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지역내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줌. - 대부분의 사업에서, 생산자의 80%는 다른 지역에서(특히 남부, 남동부) 이주함. CAMPO는 지역내의 농민과 농공학자들을 대상으로 나머지 20%의 참여자를 선정함. CAMPO는 이러한 20%의 참여자들이 지역 통합을 증진하는 것 외에도 지역내 연합의 구성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토지의 소유분배	- 위에서 정해진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자연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선정함. 그 후, CAMPO는 프로그램 원칙에 따라 사업구역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구와 조사를 실시함 - CAMPO의 연구에 기반하여 법률적 분석을 한 후, 협동조합은 토지를 구매함. - 토지의 분배사업을 계획하고 생산자들에게 분배함. - 분배사업 계획 시 보존구역의 공동주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등한 분배를 추구함.
3) 사업지역에서의 집단시설 건설과 기반시설 설치	- 관리와 생산 보조 기반 구축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들은 때때로 기초적인 기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4) 투입재, 농기구, 생산기자재의 소유와 분배 및 농산물 상업화	- 협동조합은 투입재, 농기계, 생산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분배함. 또한 농산물의 저장, 가공, 상업화 서비스를 수행함. - 이러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은 사무실, 사일로, 저장고, 건조시설 등을 건축함. 이러한 업무의 재원은 대부분 Proceder 용자에서 사용됨.
5) 기술적 지원	- 사업 수행이 끝난 후, 협동조합은 생산자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조언의 역할을 수행함

사업 특징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과 브라질 양국의 관민 합동 공동사업이다. 둘째, 세라도 지대의 프론티어(frontier)지역에서의 조합주도 입식방식에 의한 거점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보유하지 않는 농가를 입식시켜서 세라도 지대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중규모 농가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정부 간 합의(R/D) 및 관계기관 간의 “project agreement” 체결로 사업실시를 계획하였다. 일본과 브라질의 합작으로 민간회사(CAMPO)를 창설, 사업의 기획·실시 조정·감독을 담당하였다. 넷째, 입식지 조성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을 최대한 배려하고 토양보전농법 권장, 공동보류지 확보 등의 개발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사업지의 환경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공개하였다.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의 특징은 일본과 브라질 양국의 관민 합동 공동사업, 조합주도 입식방식에 의한 거점 개발사업, 정부 간 합의(R/D)로 사업실시를 계획, 환경보전의 최대한 배려 등이다.

사업 성과

Proceder 사업은 3기에 걸쳐 22년간(1979~2001.3)에 684억 엔의 융자액을 투입하고 8개 주에서 21개의 입식지를 조성, 총 합계 34.5만ha를 개발하였다.

이 Proceder 사업은 3기에 걸쳐 22년간(1979~2001.3)에 684억 엔의 융자액을 투입하고 8개 주에서 21개의 입식지를 조성, 총 합계 34.5만ha를 개발하였다. Proceder 사업에 의한 농지조성면적은 경지화면 면적 약 1,000만ha의 3.5%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Proceder 사업은 ‘식량생산, 지역개발, 환경보전’에 기여하였다. 1970년대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았던 대두 생산이 2,381만 톤(2001년)으로 증가하였고, 브라질이 연간 4100만톤의 대두(2001년)를 생산하고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브라질 대두의 약 2/3가 자국 내에서 착유하기 때문에 세라도 지대에는 많은 착유공장이 건설되었다. 아울러 축산가공업도 생기고 대두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등 거대한 식품체인이 형성되었다. 대두 이외에도 면화(2000년도 브라질 총생산량의 80%를 차지), 커피(50%), 옥수수(40%), 과일, 소고기 등의 생산지대가 형성된 결과로, 관련된 농산업에서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되었다.

표 5 Proceder에서 경작 면적과 생산량 변화

년도	대두		옥수수		FELIAO		쌀		계	
	면적 (ha)	생산량 (톤)								
81/82	18,977	22,240	447	1,164	-	-	970	1,620	26,912	29,637
82/83	23,620	39,661	700	2,129	-	-	3,119	6,206	31,932	51,183
83/84	22,941	34,254	1,200	3,299	451	671	3,285	2,154	28,774	41,423
84/85	27,072	57,635	3,004	10,891	264	470	4,467	7,629	34,950	76,902
85/86	21,553	43,627	6,344	27,834	-	-	4,888	7,301	32,785	78,762
86/87	32,544	50,086	12,277	49,219	-	-	15,325	13,199	60,146	112,504
87/88	68,475	114,934	13,812	65,997	198	136	22,907	28,392	105,392	209,459
88/89	128,777	208,238	13,060	56,704	1,079	2,103	4,433	6,632	147,349	273,677
89/90	133,231	135,857	15,900	49,013	2,540	3,549	2,668	3,141	154,451	191,984
90/91	94,216	201,706	28,569	109,636	7,924	11,162	16,899	25,443	147,652	348,075
91/92	98,978	192,959	31,328	115,097	5,082	5,080	22,904	30,749	158,292	343,885
92/93	106,382	209,277	15,305	48,012	380	526	12,777	49,736	134,844	307,551
93/94	105,016	240,637	28,403	149,024	1,369	2,232	4,110	6,704	138,898	398,597
94/95	107,850	237,901	31,520	165,950	5,832	9,617	4,611	8,785	149,813	422,253
95/96	90,347	185,032	28,919	146,006	3,353	6,397	1,605	3,678	124,224	341,113
96/97	92,940	196,935	30,958	165,447	4,101	7,568	6,785	12,185	134,975	382,418
97/98	112,675	259,842	25,817	137,808	6,166	10,528	6,943	13,529	151,641	421,780
98/99	94,504	231,662	25,726	141,818	9,594	14,144	11,192	30,273	141,056	417,970
99/00	96,679	257,274	33,622	210,087	9,280	20,176	8,924	30,234	148,505	517,771

자료: 1) Basic data of the Prodecder projects, CAMPO, 2000

2) General data and information, Prodecder, CAMPO, 1997, 1998, 2000

향후 세라도 농업개발의 과제는 대두 반출루트 개발로 인하여 아마존 삼림파괴와 삼림 열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대규모 관개시설 도입과 농약살포는 아마존강, 파라나강, 샌프란시스코강의 고갈과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우려와 선주민족 보호지 과개발 문제, 개발로 인해 고용기회는 많아지나 타 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이 주는 교훈은 대규모 농업개발에 있어서 관계자간의 이해 조정 및 복잡한 정책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발 진행 중에 각각 분야의 정책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정책이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침해해지고 합의 형성에 애로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이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정부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이 주는 교훈은 대규모 농업개발에 있어서는 관계자간의 이해 조정 및 복잡한 정책운영의 효과적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 시사점

오래 전부터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관련기관들이 추진한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운영주체와 규모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① 종합상사와 젠노(전농)가 중심이 되는 사료곡물이나 가공용 곡물 확보, ② 일본식품산업들의 해외농업개발 수입, ③ 일본 정부의 대외원조성격의 해외농업개발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주체는 민간기업이고 정부는 간접지원을 담당한다.

둘째, 종합상사와 젠노가 중심이 되는 사료곡물(또는 가공용 곡물) 확보에서는 직접생산방식보다 계약생산을 바탕으로 수확후 물량 확보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도 아시아지역보다는 북미나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셋째, 종합상사는 오랫동안 곡물메이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일로 확보를 위하여 곡물가격이 저렴할 때 일부 곡물메이지들의 회사를 합병하여 생산에서부터 수입에 이르기까지 곡물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1980년대 이후 일본 식품산업이 중심이 되어 해외농업개발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남태평양,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어차피 국내에 수입할 물량을 해외에서 직접생산하거나 물량을 확보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일본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품질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일본 국제협력단을 활용하고 가능한 정부

간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공동투자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 관리해 왔다. 이와 같이 정부대 정부로 추진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환원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라도 농업개발의 경우는 22년간에 걸쳐 꾸준히 추진된 사업이다. 우리도 정부가 보다 깊게 해외 농업개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꾸준히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용택·김배성, 한국농업의 해외식량자원 확보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C 2007-59. 2007. 11

김용택 외, FTA 확산에 대응한 농업협력추진체계 및 발전전략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C 2006-58. 2006. 12

김완배,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투자방안 연구, 2006. 3. 대산농촌문화재단 JICA, Japan-Brazi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in the Cerrado Region of Brazil : Joint Evaluation Study General Report, January 2002

<http://www.mitsui.co.jp/>

<http://www.mitsubishicorp.com/jp/index.html>

미츠이물산주식회사 식량·리테일본부 사업설명회 2008.2.29